

사회

‘암흑 수완지구’ 1만7천 가구 정전

태풍 ‘곤파스’ 피해 속출... 야구장 붕괴·주택 침수·건물 파손·낙과

목포서 정전 수리 70대 감전사도

제7호 태풍 ‘곤파스’가 통과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낙뢰로 인해 광주·전남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고 목포에서는 정전 수리 중 70대 노인이 감전사했다. 강풍으로 인해 비가 쓰러지고 과수 낙과가 발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정전과 감전사=2일 새벽 1시25분 목포시 석현동의 주택에서 김모(74)씨가 감전돼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끊어진 전선을 고치려다 번을 당한 것이 아닌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수완동 호반아파트 임시공사 현장에 있는 배전선로가 낙뢰로 인해 파손돼 수완지구 31개 아파트가 정전됐다. 수완지구 내 에너지 공급을 맡고 있는 (주)수완에너지는 긴급 복구인력을 투입, 10여 분만에 복구했지만 1만 7000여 가구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날 밤 10시께는 신안군 도초도 둔덕리 38가구, 1시간 뒤에는 흑산도 장도리 50가구에서 각각 정전됐으며, 앞서 오후 7시30분께는 신안군 가거도 306가구 전체에 1시간50분 가량 당한 것이 아닌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통되기도 했다.

◇주택·건물 파손과 과수 낙과=1일 밤 10시50분께 강진군 강진읍 J교회 옥상의 철탑이 무너지고, 강진군 군동면의 실내 야구연습장 1곳이 전파됐다. 신안군 흑산면에서는 주택 19동이 파손됐으며, 목포와 광양시 저지대에서는 침수사고가 잇따랐다.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쓰러진 비는 영광 167ha, 진도166ha, 신안 105ha, 해남 70ha 등 전남 14개 시·군에서 695ha로 잠정 집계됐다. 또 영암 등 6개 군에서 비닐하우스 80동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영암군 신북면의 배 과수원 200ha 중 약 20%의 배가 떨어졌고, 나주시 문평·왕곡·금천면의 배 재배지 18.5ha도 10% 정도의 낙과피해를 입었다. 또 구례군 토지·산동·간전면 일

대에서는 밤 재배지 20ha 중 30% 정도가 낙과 피해를 입었다. 그밖에 곡성·함평·영광 등 72ha에서 과수 낙과가 잇따랐다.

해남에서 전북 가두리 양식장 60칸을 포함, 진도의 넉치 양식장과 신안 가두리 양식장에서 수산 양식 시설이 파손됐다. 신안군 가거도에는 방파제 옹벽 30m와 안전 난간 500m가 유실되고, 104t 무게의 큐브블록 30여 개와 방파제 보호용 64t짜리 테트라포드 수백여 개도 파손됐다.

이밖에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서 일부 상가 간판이 강풍에 추락했고, 서구 치평동과 동구 서석동·목포시 하당신도심 도로 주변 등에서 가로수 수십 그루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양수환기자 yang@kwangju.co.kr



강진 베이스볼파크 붕괴

제7호 태풍 ‘곤파스’가 남부지방을 통과한 2일 오전 강풍으로 인해 강진군 군동면 실내야구장 ‘강진 베이스볼 파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폭우보다 강풍... ‘곤파스’의 세 얼굴

- ① 초속 30m ‘씩씩이 바람’
- ② 1시간 41km 순식간 이동
- ③ 구름 따라 국지성 강우

‘곤파스’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은 폭우보다 강풍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그 이유를 이동속도가 빨라 비구름이 머문 시간이 짧았고, 바다에 위치한 상태에서 북상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초속 30m 이상의 강풍=곤파스는 중심기압이 965헥토파스칼(hPa)로 태풍의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38m(시속 137km)의 강풍이 불었다.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보퍼트 풍력 등급표(0~12까지

13등급)에 따르면 이 정도 바람은 마지막 등급인 ‘씩씩이 바람’(Hurricane)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상운항하는 큰 선박도 침몰시킬 정도다. 곤파스는 10년전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프라피룬’이후 최대의 강풍으로 관측됐다.

보통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고, 마찰이 증가해 세력이 약해지지만 이번 태풍은 서해상을 따라 이동해 세력은 ‘강’을 그대로 유지했다.

◇초스피드=곤파스는 1시간에

41km를 이동했다. 편서풍과 제트기류의 힘에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까지 더해져 서해를 통과하는 태풍에 엄청난 가속을 붙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일 밤 9시 시속 34km로 이동하다가 자정 무렵에 시속 38km, 2일 새벽 3시쯤에는 시속 42km로 한반도에 접근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국지성 강우=태풍은 여러 개의 나선형 구름 띠(Cloud Band)를 가지고 있는데, 구름띠에서 강한 강수를 포함한 곳과 구름띠에서 벗어

난 곳의 차이가 나게 된다. 실제로 광주시 동구 서석동의 경우 18.5mm가 왔지만 15km 가량 떨어진 화순군 북면에서는 88mm가 오는 등 국지성 강우가 나타났다. 또 산맥이 있는 경우에는 구름대가 더 발달해서 비의 양이 많아진다. 실제로 광양 백운산에 176.5mm, 지리산 피아골 126.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지만 광주 15.5mm, 영광 39mm, 장흥 38.5mm 등 산맥이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적었다.

/양수환기자 yang@kwangju.co.kr

이번엔 ‘해수담수화 비리’

검·경수사... 여수 경관비리 공무원 3명 추가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에서 비롯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순신광장사업’ 등에 이어 ‘해수담수화 사업’으로까지 확대됐다. 또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에 연루된 비위 공무원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여수지역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최근 해수담수화 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해갔다. 여수 해수담수화사업은 남면 봉룡리, 화정면 상화도 등에 수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야간경관사업’에서 비롯된 검·경의 수사는 ‘이순신광장사업’과 ‘웅천생태터널사업’, ‘인공해수욕장사업’ 등에 이어 ‘해수담수화사업’으로 확대됐다. 오현성(60) 전 시장 재임 당시 여수시가 추진했던 주요 사업 대부분이 사실상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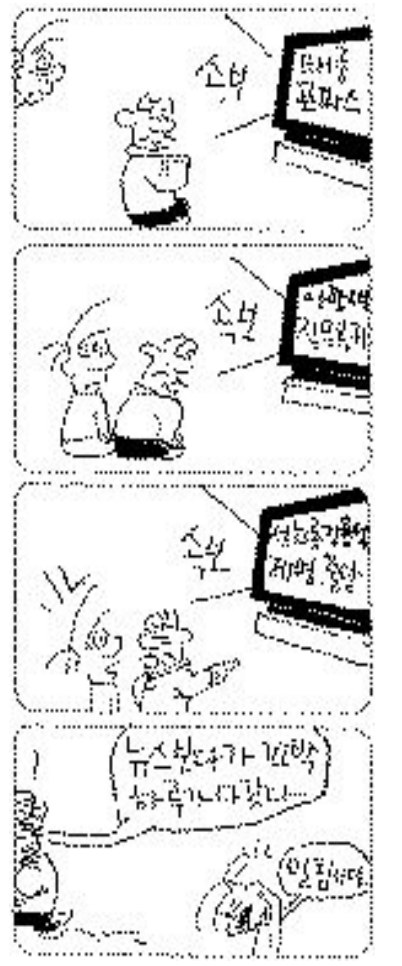
특히 여수시는 여수지역 비리 사건에서 ‘뇌관’ 역할을 한 ‘야간경관조명사업’에 연루된 공무원 3명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6급 공무원 A(36)씨 등 3명이 ‘야간경관조명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지난 1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모(58·5급)씨와 함께 ‘야간경관조명사업’을 담당하던 공무원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실무 공무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 여수시는 이들 공무원의 비리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나원침 (8110) 김중두



‘공채 뒷돈’ 조선대 교수 3명 징역·벌금형 선고

A씨는 경찰관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임용된 뒤 올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용 전 신분조회 등에서 성추행 전력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52곳, 중학교 77곳, 고교 32곳, 대안학교 2곳 등 163곳에 170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돼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배움터 지킴이가 여학생 성추행”

광주 한 중학교서

광주 한 중학교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해야 할 ‘배움터 지킴이’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산구 모 중학교 상담실에서 이 학교 배움터 지킴이 A(59)씨가 1학년 B양(13)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맞춤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A씨를 해촉했다.

정신지체 아들 폭행치사 ‘비정의 아버지’ 15년형

동생 등 2명도

‘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정신지체 장남을 각목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와 동생 등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일 정신지체 장남(2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

인)로 기소된 강모(63)씨와 차남(21), 숨진 장남의 선배 박모(37)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 사유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들고 선처를 호소하나,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범행 유발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주 모 고교 교장

근무 첫 날 돌연사

2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에 사는 광주 모 고교 교장 박모(59)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누운 채 숨져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이날 밤 태풍에 대비해 학교 시설물을 둘러보고, 퇴임한 전임 교장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해 밤 9시 50분께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1일 최근 법인 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승진, 첫 근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청학련 고윤환봉 등 3명

재심서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故) 윤환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과 김정길씨, 이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에비밀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반정부 시위 등을 조직하는 등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지친구 성폭행男 추적 보복폭행



여지친구 성폭행男 추적 보복폭행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찾아가 ‘짓가라’를 마쳐 핏기인 것처럼 속여 위협한 뒤, 폭행한 20대가 경찰서행.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결혼을 약속한 자신의 여자친구(20)가 지난해 11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이날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는 조씨를 찾아가 폭행.

○김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조씨와 강제로 잠자리를 가진 뒤 힘들어해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례 최고의 와인의 환연!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Lapostolle

Chateau Lapostolle, Napa Valley, California

1982년 설립, 100년 전통의 와이너리

Chateau Lapostolle, Napa Valley, California

1982년 설립, 100년 전통의 와이너리

17회 와인 & 다인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회: 약 100,000원

입장료: 무료 (음식료 별도)

일: 9월 3일

장: 광주광역시 남구 동남동 199-1번지 (신대동)

문의: 010-9700-0000

Wine & Dine

17th Annual Wine & Dine Event

9월 3일 (Wednesday)

10:00 AM - 6:00 PM

Chateau Lapostolle, Napa Valley, California